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수용과 변용

—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중심으로

이 정 안*

요약

이 글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수용과 변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이 소설은 1992년 발간 당시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혹평받았으며, 작가가 '추리소설의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르문학 관점에서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글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위계적 젠더 체계를 교란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이루어진 범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시적 복수의 형태를 띤다. 이는 하드보일드 소설의 관습과, 90년대 초에 급부상한 여성 주체 범죄 서사를 떠받치고 있는 성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강민주라는 여성 터프가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남성성을 강조하는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변용을 꾀한다. 소설에서 이루어진 성의 전도는 위계적 젠더 질서에 충격을 가한다. 그러나 전도만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없다. 강민주의 변화는 이러한 전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젠더 체계를 상상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주제어: 양귀자, 하드보일드, 90년대, 여성범죄, 페미니즘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리얼리즘, 페미니즘, 하드보일드
2. ‘그녀’의 범죄
3. 터프가이의 변화와 죽음
4. 나가며

1. 리얼리즘, 페미니즘, 하드보일드

2020년대 이후 양귀자의 소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2021년 교보문고 종합 연간 집계에 따르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¹⁾은 국내 소설 23위에, 『모순』은 10위에 올랐다.²⁾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1992년 8월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2019년 4월에 도서출판 쓰다에서 3판이 간행되었고, 3판은 간행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30쇄를 찍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소설의 인기가 작가의 인터뷰나 광고와 같은 홍보 효과에 기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³⁾ 특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구매자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60.2%, 30대 여성이 25.9%로 2030 여성이 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 즉 소설의 초판이 발간되었을 무렵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독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던 여성들이 이 책의 새로운 독자가 되어 소설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은』이 당대에는 외면받다가 뒤늦게 인

1)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쓰다, 2019. 이하 본문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함.

2)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20년, 2021년 교보문고 연간 국내소설 베스트셀러 30에 이름을 올린 소설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과 『모순』뿐이다.

3) 이기문, 「20년 동안 인터뷰도, 책 광고도 없었는데...양귀자의 힘」, 『조선일보』, 2021년 3월 17일.

4)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8441071&start=pnaver_02 접속일자: 2022년 4월 29일.

기를 얻게 된 소설은 아니다. 출간 직후 92년과 93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당대에도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⁵⁾ 94년에는 극화, 영화화되면서 다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양귀자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입지를 마련해준 건 이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소설이 90년대는 물론이거니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소설을 그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고만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만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흔히 베스트셀러에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세월을 건디는 내구력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몇 가지 잣대에 걸려 험소한 시선 내의 평가만을 받았다. 소설이 얻은 인기에 비해 당대 평단의 반응은 미미한 편이었고, 그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2019년에 3판이 간행된 이후에 진행된 연구들은 그동안 이 소설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면들을 살피고 있으나⁶⁾, 그 이전에 누적된 연구들이 워낙 적어서 해당 텍스트가 지닌 의의가 충분히 구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소설에 대한 너른 평가를 가로막은 그 잣대들이란 무엇이었을까?

5) 「Book 스테디셀러…손꼽히는 책들」, 『조선일보』, 1993년 12월 25일, 13면.

6) 이해령은 해당 소설을 강남을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사회문화적 재현과 페미니즘 이슈를 중점시킨 범죄 서사물로 보았으며, 이한나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가족법 개정 투쟁 이후의 서사로 독해함으로써 해당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성에 주목하였다. 전청림은 강민주를 나르시시즘적 주제로 상징하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중 특히 이해령의 연구는 해당 소설을 범죄 서사로 읽어냈다는 점에서 본고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또한 가장 최근 연구인 허주영의 논문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중심으로 90년대 한국문학의 주요 비평적 논의와, 페미니즘 담론과 독자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해령, 「어느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의 딜레마」, 『대중서사연구』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이한나, 「양귀자 소설의 정치성 재고」, 『동악어문학』80, 동악어문학회, 2020; 전청림, 「양귀자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81호, 현대소설학회, 2021; 허주영, 「1990년대 페미니즘의 대중화, 그 직전의 풍경」, 『민족문학사연구』7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답을 얻기 위한 힌트는 초판 ‘작가의 말’과 2019년도 판 ‘작가의 말’에 숨겨져 있다. 2019년도 판과 1992년도 초판을 살펴보면 ‘작가의 말’ 부분이 미묘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92년도 판에는 ‘있었던’ 문장들이 2019년도 판에는 ‘빠져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사라진 문장들이야말로 이 소설이 90년대에 ‘어떤’ 소설로 읽혔는지를 짚어준다. 92년도 판 ‘작가의 말’에서 양귀자는 이 소설이 불리일으킬 논란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말들을 하고, 작가가 방어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출간 직후 평단에 의해 집중 공격당한다.

2019년도 판 작가의 말에는 없지만 초판에는 있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소설에는 “엄정한 리얼리즘의 시선이 유보”⁷⁾되어 있다는 작가의 말과, 소설 후반부에 나타난 강민주의 변화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가 리얼리즘의 시선을 유보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설은 리얼리즘의 잣대로 평가되었다. “여성현실에 대한 구체적 맥락이 사상”⁸⁾되어 있다는 평가, 남성에 대한 응징의 논리를 허구로 돌려버렸다는 평가⁹⁾, 리얼리즘 소설에서의 주인공과 다르게 완벽한 초월적인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¹⁰⁾,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의 갈등을 멋대로 조작”¹¹⁾한다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해당 작품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소설 후반부에 나타난 강민주의 변화와 죽음이 결코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작가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강민주의 변화와 죽음이라는 결말은 대다수 독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안

7)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살림, 1992, 14면.

8) 김양선·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과 사회』 4호, 한국여성연구소, 1993, 103면.

9) 박혜경, 「폐허 속에 일구는 희망의 연대-양귀자의 작품세계」, 『문학의 신비와 우울』, 문학동네, 2002, 169면.

10) 류보선, 「길 찾기, 혹은 소설가의 숙명」, 『경이로운 차이들』, 문학동네, 2002, 278-280면.

11) 이경덕, 「여성문제의 인식과 소설적 형성화」, 『실천문학』30호, 1993.5, 384면.

겨주었으며¹²⁾ 이 소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철저히 못한 소설로 독해되도록 만들었다.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도 이 소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페미니즘 소설로서 미달’, 혹은 ‘비(非)페미니즘 소설’, 심지어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반(反)페미니즘 소설”이라는 것이 당대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이 소설에 대해 내린 평가였다.¹³⁾ 특히 독자들에게 후련함을 선사했던 전반부와는 달리 강민주의 변화를 보여주는 후반부는 ‘보수적 입장으로서의 회귀’로 여겨졌다.¹⁴⁾

이처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둘러싼 논의는 이 소설이 ‘리얼리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와, 얼마만큼 ‘페미니즘’과 접합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특히 페미니즘 소설로서 미달이라는 지배적 평가는, “여성 문학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연대”¹⁵⁾로 기록된 90년대의 문학사에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당대 평론에서 스치듯이 언급된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할리우드 영화식의 사건구조”¹⁶⁾, “할리우드 영화기법의 차용”¹⁷⁾이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 중 어느 장르의 영화를 의미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서술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할리우드 영화같다’는 평은 곧 소설에 대한 부정

12)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결말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결말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이소희,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또 하나의 문화』9호, 또 하나의 문화, 1992년 겨울, 200-217면.

허주영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비페미니즘 내지 반페미니즘 소설로 낙인찍은 당대 평론가들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3) 이소희, 위의 글, 200-217면; 박혜경, 위의 글, 169면.

14) 이명호 외, 「좌담: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만남, 뿌리내리기」, 『여성과 사회』5호, 한국여성연구소, 1994.1, 22면.

15) 황중연·진정석·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44면.

16) 김양선·김은하, 위의 글, 124면.

17) 이명호 외, 위의 글, 19면.

적인 평가를 더하는 이 소설의 상업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한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추리소설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그러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추리를 통해 탐정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고전 추리소설과는 거리가 먼 탓인지 이 발언에 주목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풍기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와 ‘추리소설’의 냄새는 이 소설이 장르문학으로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르문학 중에서도 이 소설은 하드보일드 소설에 가깝다. 1920년대부터 주로 「블랙 마스크(Black mask)」와 같은 펄프 잡지를 통해 유통된 하드보일드 소설은, 약 20년 뒤 누아르 영화가 출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최초의 누아르 영화로 인용되는 존 휴스턴 감독의 「말타의 매(Maltese Falcon)」(1941)는 다름 아닌 하드보일드 스타일을 정립한 작가인 대실 해밋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누아르 영화와 하드보일드 소설은 영화와 소설이라는 매체 간의 차이만 존재하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⁹⁾ 하드보일드는 인간 내부에 내재한 폭력과 성, 부조리한 세계의 단면을 감정을 배제한 채 냉정하게 묘사하는 문체²⁰⁾를 의미하기도 하고, 추리소설·범죄소설·탐정소설의 하위장르로 간주된다. 하드보일드 소설에는 터프하고 비정하고 행동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²¹⁾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응접실에 앉아서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²²⁾, 하드보일드 소설 속 주

18) 이문재, 위의 글, 1992년 7월 30일.

19) 닉 레이시, 임영호 역, 『내러티브와 장르』, 산지니, 2020, 246-248면.

20) 신혜원,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 『미국학논집』44권, 한국아메리카학회, 2012, 83면.

21) 정태원, 「현대 추리소설의 여러 양상」, 『오늘의 문예비평』11권, 오늘의 문예비평, 1993년 겨울, 303면.

22) 박유희, 「한국 추리소설에 나타난 ‘탐정’ 표상」, 『한민족문화연구』31권, 한민족문화학회, 2009, 400면.

인공들은 안전한 응집실이 아닌 비열한 거리로 나와 폭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이 글에서는 이 소설이 장르문학에서 중시되는 장르적 관습, 그중에서도 하드보일드 소설의 관습을 어떻게 수용·변용하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소설을 장르소설로 읽어내는 이러한 독해 방식이 오히려 그동안 이 작품에 없거나 부족하다고 평가된 ‘현실성’과 ‘페미니즘’을 길어 올리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대에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소설은 주로 20대 여성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이 소설이 리부팅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²³⁾와 무관하지 않다. 주인공이 벌이는 범죄의 강력한 동기로 제시되는 젠더 불평등 문제는 1990년대의 현실 문제이자 2020년대의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는 남성 중심의 젠더 질서에 대한 위반과 교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설은 하드보일드라는 장르의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그 장르 내의 젠더 규범에 대해 도전한다. 즉 이 소설의 젠더 전복적 성격은 바로 이 하드보일드라는 장르 관습의 변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나타난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수용·변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을 둘러싼 기존의 오해들을 반박하고 특히 이 소설이 지닌 젠더 전복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가 그동안 한국 문학사에서는 낯선 존재였던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문학이 호명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소망한다.²⁴⁾

23)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문학과학』83호, 2015년 가을, 14면.

24) 일단 한국 하드보일드 소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르로서의 하드보일드는 미스터리의 하위장르로 여겨지는데, 미스터리과 같은 장르물을 통속문학으로 간주하여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록 홈즈와 필립 말로로 대표되는 고전적 탐정과 하드보일드 탐정 중 한국 추리소설에는 고전적 탐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정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녀’의 범죄

하드보일드 소설과 여타 범죄 서사물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하드보일드 소설에서 추리 대신 필요한 것은 액션이며, 미스터리 요소는 서스펜스로 대체된다.²⁵⁾ 예를 들어 레이먼드 찬들러가 지적인 바와 같이, 『말타의 매』에서 스페이드의 동료 파트너 아처의 죽음은 이 소설의 유일한 수수께끼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소설이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다른 쪽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것이다.²⁶⁾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도 이미 벌어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추리극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를 주인공의 입장에 이입하게 만든다. 독자들은 주인공의 범죄가 성공하길 바라게 되고, 주인공의 범죄를 실패로 이끌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은 서스펜스를 발생시킨다. 예로 소설에서 주인공의 범죄를 방해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악인에 가까운) 김인수와 같은 인물은 서스펜스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드보일드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드보일드를 대표하는 작가인 레이먼드 찬들러의 소설들은 필립 말로라는 주

박인성은 확실히 하드보일드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장르가 아니라, 「차이나 타운」이나 「미옥」처럼 여성 중심의 느와르 영화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드보일드 장르 자체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본다.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③-하드보일드와 누아르, 내면의 분투 혹은 ‘후까시’로의 승화」, 『계간 미스터리』, 2022년 봄, 358면.

하드보일드는 미스터리가 빨리 자리 잡은 서구에서도 오래도록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독립적인 연구분야로 취급되기보다는 헤밍웨이와 같은 정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의 스타일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정도였다. 이러한 푸대접은 하드보일드 소설을 기존 추리소설에서 지적인 요소가 빠지고 자극적인 요소만 더해진 싸구려 소설이라 여기는 하드보일드 소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고. 고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25) 닉 레이시, 위의 책, 247면.

26) 레이먼드 찬들러, 최내현 역, 『심플 아트 오브 머더』, 북스피어, 2011, 32면.

인공의 시선을 따라 전개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은 주인공의 풍부한 내적 독백을 포함한다. 하드보일드 소설에서 내적 독백은 “주인공의 내면적 고뇌를 외적으로 표현하고 이는 병든 사회 내부에서 주인공을 변별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²⁷⁾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첫 장부터 주인공 강민주의 내적 독백으로 시작한다. 강민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독자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녀가 왜 그렇게 무모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명분 없는 범죄라면 독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여기서 범죄는 “개인의 비이성과 혼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적 현상이자 사회 구조적 변화의 결과물”²⁸⁾에 해당한다. 장르소설은 문화적 갈등을 소재로 삼으며, 특히 범죄소설은 범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공공 정책에 관한 대중들의 논의를 반영하고 또 그에 참여한다는 레너드 카수토의 의견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²⁹⁾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주인공이 벌이는 범죄는 젠더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현상과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강민주가 벌이는 납치, 감금 등은 분명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 쉽게 선악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드보일드 소설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등장인물에 의해 강하게 추동되는 장르다.³⁰⁾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는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¹⁾ 따라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

27) 박인성, 위의 글, 352면.

28) 박인성, 위의 글, 350면.

29) 레너드 카수토, 김재성 역, 『하드보일드 센터멘털리티』, 뮤진트리, 2011, 10면.

30) Susanna Lee, *Detectives in the Shadow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0, p.3.

31) 192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된 ‘하드보일드’라는 용어는 범죄 소설 유형을 의미하지 않았다. 하드보일드는 인물의(감정에 대한 냉소적인)태도를 의미했다.

지된 것을』의 강민주리는 등장인물이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은 탐정인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는 사회의 타락한 도덕을 대체하는 자신만의 행동 규범에 따라 무심한 세상을 살아 나간다.³²⁾ 따라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 탐정이 아닌 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하드보일드 소설의 문법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³³⁾ 하드보일드는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장르이며, 장르 안에서 대개 여성은 대상화되기 때문이다.³⁴⁾ 범죄 서사에서 여성은 주로 피해자가 아니면 남성 주체의 혐오와 공포의 대상인 팜프 파탈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팜프 파탈은 남성 주체의 처벌과 응징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민주

<https://en.wikipedia.org/wiki/Hardboiled> 접속일자: 2022.06.15.

하드보일드가 인물의 “태도, 인격, 도덕적 속성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드보일드가 등장인물에 주로 기대고 있는 장르임을 확인할 수 있다. Susanna Lee, 위의 책, p.6.

32) 레너드 카스토, 위의 책, 12면.

33) 하드보일드 소설이 탄생하고 번성했던 미국에서조차 여성 작가들이 앞세운 여성 주인공이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류로 안착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그 전까지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은 ‘울퉁불퉁한 근육의 마초나 ‘알코올과 담배에 찌든 채 뒷골목에서 총을 겨누는 터프가이’의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용언, 「누아르/하드보일드 소설 속 여자들」, 『여자에게 어울리는 장르, 추리소설』, 메멘토, 2022, 120~121면.

34) 하드보일드 소설의 상위 장르인 추리소설 혹은 범죄소설 자체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장르로 굳어져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에린 스미스(Erin Smith)는 하드보일드 소설을 백인 남성을 특권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장르로 파악한다. 마티 로스(Marty Roth)도 유독 하드보일드 장르에서 마초이즘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함으로써, 하드보일드 남성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장르임을 밝히고 있다.

Erin Smith, *Hard-Boiled*, Temple University Press, 2000; Marty Roth, *Foul & Fair Play: Reading Genre in Classic Detective Fictio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5, p.89

는 백승하라는 남성을 처벌하고 응징하려는 자다.³⁵⁾ 전통적으로 하드보일드 소설에서 남성에게 혐오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여성이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남성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라는 방식으로 주체의 위치에 서고자 했다는 점에서 강민주라는 캐릭터는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90년대 초 한국 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

이처럼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에 따라 소설 속 범죄도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된다. 여타의 하드보일드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설 속 범죄는 부조리한 현실의 단면을 드러내는데, 남성 주인공을 내세운 하드보일드 소설에서 그 주인공에 의해 승인되고 수행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는 바로 강민주가 범죄를 계획하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 소설이 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란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의미하게 된다.

강민주의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90년대 초 여성의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이 발표되기 직전인 91년에는 「텔마와 루이스(Thelma & Louise)」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총으로 무장하거나 항상 싸움을 붙지 못해 안달이 난 여성들”³⁶⁾이 영화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반면, 남성들은 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핀란드 출신 작가인 마타 티카넨의 『강간당한 남자(Maen Kan Inte Valstas)』가 한국에서 90년 12월에 출간된다. 이 소설은

35) 이 처벌과 응징이 후반부 강민주의 변화로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 강민주를 팜프 파탈이라는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캐릭터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해령은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강민주가 백승하에게 감화된 것을 페미니스트에서 팜프 파탈로의 전화로 해석하며, 결국 팜프 파탈이 하층계급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청림은 소설에서 백승하가 유혹하는 입장이고 강민주는 유혹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민주를 팜프 파탈로 보는 기존의 해석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드보일드 장르에서 팜프 파탈은 남성의 내면적 혼란을 정당화하는 대상으로서 기계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민주가 팜프 파탈이라는 진단은 지나친 감이 있다.

이해령, 위의 글, 249면~254면; 전청림, 위의 글, 300면.

36) 「은행강도 등 ‘거친 여성상’ 부각», 『조선일보』, 1991년 8월 10일자, 13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과 유사한 점이 많은 소설이기에 지면을 빌려 줄거리를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매티라는 남성에게 강간당한 여성인 토봐는 장난감 권총을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서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매티를 강간한다. 토봐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고발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매티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다.³⁷⁾

이처럼 영화나 소설에서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들이 등장한다. 91년에는 여성 범죄자 수가 1년 만에 25.9% 급증한다.³⁸⁾ 같은 해 1월에는 자신을 21년 전에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³⁹⁾이 각종 매체의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같은 해 2월에는 남모 여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 장이 파열되고 아이를 사산한 뒤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⁴⁰⁾ 92년 1월에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⁴¹⁾이 발생한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서사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여성의 범죄는 주로 공포와 같은 현실 초월적인 장르에서 소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예외적인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현실적인 질서까지 뚫고 나올 힘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이를테면

37) 『『강간당한 남자』 마타 티카(지)·여성의 시각으로 본 성폭력과 법률해석의 갈등』, 『동아일보』, 1990년 12월 20일.

38) 「여성범죄 26% 급증 경찰청, 지난해 분석」, 『동아일보』, 1991년 8월 11일.

39)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동아일보』, 1991년 8월 17일.

40) 「술 취해 구타 일삼는 남편 살해 주부 항소심서 집유」, 『조선일보』, 1991년 8월 9일, 23면.

41)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씨 사건 여성계'제2의 김부남'공동 대응」, 『한겨레』, 1991년 1월 29일, 8면.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투구에 걸린 목」이라는 상징극으로 재탄생하여 92년 봄 이화여대 가정관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여성 원혼이나 여간첩에 의한 범죄 서사는⁴²⁾ 여성 범죄자의 예외성을 보여주며, 성적 매력을 지닌 악녀인 팜프 파탈에 의한 범죄 서사 역시도 제한된 시각 내에서 여성 범죄가 소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나타난 여성 범죄자 형상에서 예외성은 탈각된다. 그녀들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강민주도 실제로는 비범하지만, 그 비범함이 현실을 초월하는 수준은 아니다. 강민주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강민주는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90년대 초 영화·소설·현실에서 자행된 여성 범죄는, 선행하였으나 처벌받지 아니한 남성 범죄에 대한 복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 받으며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경우, 여성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공적 처벌을 받지 않은 남성 가해자에게⁴³⁾ 사적 복수를 행하였다. 즉 이들 여성들은 피의자이기 이전에 피해자였다. 김부남이 성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성인이 돼서도 가해자의 사과는커녕 폭력과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김보은이 법정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⁴⁴⁾라고 진술했다는 이야기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극대화된다. 따라서 김부남과 김보은을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뿐만⁴⁵⁾ 아니라 이들은 무죄라는 여론이 형

4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박유희, 『한국영화 표상의 지도』, 책과함께, 2019. 4부 2장과 3장을 참조할 것.

43)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 시간도 6개월에 그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부남·김보은 사건으로 인해 여성,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44) 「여성의 굴레」, 『조선일보』, 1992년 7월 21일, 5면.

45) 「성폭행 피해자 김부남씨 선처해야」, 『한겨레』, 1991년 8월 18일, 12면.

성되었다.⁴⁶⁾ 결국 김부남과 김보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는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관용’⁴⁷⁾이었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을 정도였다.

노태우 정부는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인신매매, 강간, 특수강도, 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렸으며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나 아동이었다.⁴⁸⁾ 또한 가정 내에서는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이 절반이 넘었다.⁴⁹⁾ 이처럼 여성은 안팎으로 남성의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해줄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여성들을 사적 복수로 이끄는 동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던 것이다.

하드보일드 장르에서 공권력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정의를 달성하기에 법은 너무 무력하거나 부패한 것으로 묘사된다.⁵⁰⁾ “법률과 공권력에 대한 적개심은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보편적인 정서”⁵¹⁾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키 스피레인의 「내가 심판한다(I, The Jury)」의 주인공인 마이크 헤머는 친구를 죽인 범인을 찾아 나서는데, 범인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처단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스스로 남성을 응징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강민주와 같은 여성 범죄자가 등장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주인공이 부패하거나 무력한 공권력 대신 복수를 꾀하는 것은 하드보일드 소설 문법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복수의 동기는 당대 현실 속 여성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김보은씨무죄」 거리 서명 총복 8개 사회·학생단체, 『한겨레』, 1992년 4월 22일, 13면.

47) 「유죄 인정 부당」 항소 체비 후원단체 “법과 정상 현명하게 조화” 범주·학계, 『조선일보』, 91년 8월 31일, 12면.

48) 「날뛰는 성범죄 밤낮이 없다, 『경향신문』, 1990년 11월 6일, 15면.

49) 「아내 절반이 맞고 산다」, 『경향신문』, 1991년 1월 5일, 9면.

50) 닉 레이시, 위의 책, 251면.

51) 계정민, 위의 책, 336면.

그런데 강민주의 복수에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 남성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꾀한다는 점이다. 강민주는 여성문제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사연을 채집한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아무리 정신적·육체적인 학대를 당해도 이혼을 강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처럼 불행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연, 즉 '절망의 텍스트'⁵²⁾들을 바탕으로 삼아 복수를 기획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나의 절망'이 아닌 '절망의 텍스트'를 밑거름으로 삼는 이러한 복수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강민주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해자를 찾아가서 응징하는 형태의 복수가 아닌 상징살인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 상징살인은 선행연구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⁵³⁾ 물론 소설에는 강민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강민주의 아버지는 "도박과 술, 계집질과 남 등쳐먹는 사기, 밤낮으로 휘두르는 주먹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⁵⁴⁾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만약 강민주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 응징하는 형태의 복수를 했더라면, 그 대상은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11살에 집을 나온 이후, 아버지와의 연이 완전히 끊어져 강민주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린다. 또한 강민주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듬어가며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린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강민주가 범죄를 계획할 당시에는 폭력의 피해자였던 어머니 또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민주가 가해자인 아버지를 직접 처단하는 것이 큰 의미

52)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53) 상징살인의 한계에 대해서는 김양선·김은하, 위의 글; 이해령, 위의 글 참조.

54) 양귀자, 위의 책, 74면.

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강민주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이라고 ‘나’를 앞세워 발화하지만, 실상은 복수를 ‘우리(여성들)의 것’으로 만든다.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복수(複數)의 여성들을 대신한 복수(復讐)인 셈이다. 그런데 강민주의 복수는 ‘우리’에게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을 행하는 ‘나’는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하는 아이러니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절망의 텍스트’를 복수의 동기로 삼으면서도 절망의 텍스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것⁵⁵⁾”이라는 강민주의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터프가이⁵⁶⁾의 변화와 죽음

강민주는 왜 ‘나’와 ‘우리’를 구별하고자 할까. 그녀는 분명 여성들을 대리하여 복수하지만, 여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소설 내내 어필한다. 앞서 언급한 박부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외모나 기록으로 봐서 조용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계획·결행했다는 것은 성폭행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⁵⁷⁾ 이처럼 피해자이자 범죄자이기도 한 여성은 가련하고도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며 피해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그런데 강민주는 “조용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의 소유자”로 대표되는 여

55) 양귀자, 위의 책, 9면.

56) ‘터프가이(Tough guy)’는 하드보일드/누와르 장르 속 주인공을 가리키는 말로, ‘가이(guy)’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본 성별이 남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브루는 터프가이가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남성성이라는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다.

Cristopher Breu, *Hard-boiled Masculini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pp.1-22.

57) 「성폭행 보복살해 집유」, 『조선일보』, 1991년 8월 31일자, 23면.

성 피해자 겸 범죄자 형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녀는 황남기와 백승하에게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거칠면서도 냉정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또한 그녀는 여성을 포함한 인간 대부분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긴다.

강자에게 짓밟히는 약자들이 끝없이 소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힘. 언젠가는 힘으로 다시 너를 누르리라. 언젠가는 힘으로 다시 너를 누르리라. 내게 힘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한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리라. (중략) 그녀들은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힘, 어떤 거대한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중략) 그랬다. 나는 그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나는 비로소 내가 초월자라는 것을. 응징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⁵⁸⁾

자신을 초월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강민주에게 여성 간의 연대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범죄를 계획한다. 범죄의 실행에는 황남기도 참여하지만, 황남기는 강민주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주인공을 내세우는 것은 하드보일드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고전추리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와 왓슨이 파트너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으며 감정적으로도 교류하는 것과 달리,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들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들은 “특정 단체나 조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⁵⁹⁾에 따라 움직이는 고독한 터프가이들이다.

왜 하드보일드 소설 속 터프가이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을까?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심하고도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함이나 연민·공감 등의 감정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거

58) 양귀자, 위의 책, 72-74면.

59) 계정민, 위의 책, 346면.

나 파멸로 이끈다. 레이먼드 채들리의 『기나긴 이별(The Long Goodbye)』에서 필립 말로가 테리 레녹스라는 사내에게 친밀감을 느꼈던 결과로 겪어야 했던 고초를 떠올려보자. 하드보일드의 고독한 터프가이들은 수사 결과의 합의 변화라는 복잡한 과정에 정서적으로 연루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것의 의미가 바뀐다.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당이고, 연인은 살인자, 믿었던 친구는 부패한 배신자로 밝혀지기도 한다.⁶⁰⁾ 그러나 말로를 비롯한 이 터프가이들은 타인의 배신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염세주의자며 근본적으로 사람을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⁶¹⁾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이 감정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터프가이들은 바로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예방하는 강인함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⁶²⁾ 강민주도 의도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백승하 납치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다. 강민주와 공범인 황남기는 강민주에게 관리가 필요한 하나의 자산일 뿐이다. 그녀가 황남기를 관리하는 방식은 본인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황남기의 감정 또한 통제하는 것이다. 강민주가 자신이 감정보다는 이성인 우세한 인물임을 내세우는 부분은 소설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천력도 뛰어난 인물이지만 감정-특히 인간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에는 메마른 인물이다. 그녀가 그나마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이란 대부분이 경멸인데, 이러한 감정은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는 일이 없다. 강민주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 또한 그녀가 감정 통제에 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황남기는 ‘하이에나’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60) 닉 레이시, 위의 책, 251면.

61) 박인성, 위의 글, 351면.

62) Christopher Breu, 위의 책, p.1.

잔인한 사내지만, 사실은 ‘여린 감성’⁶³⁾의 소유자다. 황남기의 ‘여린 감성’은 강민주에게만 표현된다. 황남기는 강민주를 연모하고 있는데, 강민주는 이 점을 이용해서 황남기의 충성을 이끌어 내면서도 이 연모의 감정이 권력관계를 훼손하는 선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이를 관리한다. 황남기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신을 잇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민주에게 황남기는 감정을 교류하는 상대가 아니다. 황남기는 (강민주가 지정한 테두리 안에서) 감정을 표출하지만, 강민주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는 황남기와 강민주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내고, 이 거리는 강민주가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든다.

“백승하도 결국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돌아온다.”⁶⁴⁾, “한꺼번에 두 남자를 돌보는 일은, 칭얼거리고 변덕 부릴 기회만 노리는 정서불안의 갓난아이 돌을 한꺼번에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피곤하고 정신을 혹사하는 일”⁶⁵⁾, “남자들이란 정말 피곤한 존재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기능조차 습득하지 못한 미개인들”⁶⁶⁾이라는 강민주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강민주는 백승하와 황남기라는 두 남성을 감정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두 남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백승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강민주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된다. 강민주는 “백승하에게 향하는 내 감정에 다소 변화”⁶⁷⁾가 생겼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백승하의 말을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⁶⁸⁾ 듣기도 한다.

강민주가 감정의 통제권을 상실해감에 따라-납치범과 인질(강민주와 백승하), 주종관계(강민주와 황남기)라는-강민주가 권력을 쥐기에 유리할

63) 양귀자, 위의 책, 61면.

64) 위의 책, 220면.

65) 위의 책, 222면.

66) 위의 책, 232면.

67) 위의 책, 222면.

68) 위의 책, 235면.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조차 권력을 잃어가게 된다. 황남기는 강민주의 명령에 불복하기도 하고, 백승하는 ‘역(逆)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할 만큼 강민주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백승하와 강민주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오네스코의 「수업(The lesson)」이다. 백승하의 제안으로 강민주와 백승하는 부조리극인 「수업」을 공연하기로 한다. 이오네스코의 「수업」은 무의미한 지식과 언어에 의해 권력이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극 초반에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교수는 극이 진행될수록 무의미한 지식과 언어를 무기로 삼아 광포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처음에는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여학생은 교수의 다그침에 점점 말과 생기를 잃다가, 결국 광증이 절정에 이른 교수의 손에 살해당한다. 인질이 아니라 교수가 된 백승하는, 납치범이 아닌 학생이 된 강민주와의 관계에서 순식간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연습에 임하는 동안은 그가 나의 지휘자다. 나는 기꺼이 그의 통제하에 있다.”⁶⁹⁾는 강민주의 독백은 뒤집힌 그들을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백승하로 인한 감정의 동요는 강민주와 황남기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킨다. 황남기는 백승하에게 동요하는 강민주에게 불만을 품고, 그동안 강민주에 의해 제어 당한 자신의 연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끊어오르던 황남기의 연정이 폭발하는 순간, 강민주는 「수업」의 여학생처럼 살해당하게 된다.

백승하에게 강민주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 강민주의 변화는 백승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백승하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야반도주했다. 그러나 백승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또한 그는 어릴 적에, 미군에게 매 맞고 사는 노랑이라는 이웃 여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백승하의 고백 이후 강민주는 “백승하를 대하는 내 감정에

69) 위의 책, 272면.

변화”⁷⁰⁾가 생겼음을 인정한다. 이때부터 연극 연습도 시작한다. 강민주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승하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이전처럼 냉정해지려고 노력하나 이제 “조금도 냉정해질 수 없”⁷¹⁾다. 황남기도 이런 강민주의 변화에 대해 지적한다.

강민주가 납치 상대로 백승하를 고른 이유는, 그가 여성들에게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질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그의 “추악한 본성”⁷²⁾을 고발하면 저절로 그가 만들어낸 환상도 깨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민주가 대면하게 된 백승하의 민낯은 여성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담은 얼굴이었다. 백승하는 사회에서 옹호 대신 손가락질을 받는 여성에게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노랑이가 당한 폭력과 그로 인한 죽음을 돈 때문에 성을 판 대가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동네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백승하는 미군의 무지막지한 매질로 인해 터져 나오는 노랑이의 비명에 가슴 아파하고, 끝내 그녀가 죽었을 때 유일하게 울어준 사람이었다. 또한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되는대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 어머니의 도주를 두고 백승하는 어머니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⁷³⁾낸 것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백승하는 ‘가정을 버린 여자’, ‘몸을 파는 여자’라는 비난 뒤에 가려진 그녀들의 불행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다.

백승하의 이러한 성품은 작품 내에서 ‘부드러움’으로 표현된다. 백승하의 부드러움이 ‘진짜’로 판명되는 순간, 범행 대상을 완전히 잘못 고른 강민주의 내면은 동요될 수밖에 없다. 그는 강민주가 단죄하고자 했던 남성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백승하가 지닌 부드러움은 관습적으로 여

70) 위의 책, 211면.

71) 위의 책, 292면.

72) 위의 책, 139면.

73) 위의 책, 202면.

성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는 자기 절제의 에토스와 여성적 감정의 거부를 통해 형성되어 온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적 정체성⁷⁴⁾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셈이다. 오히려 자기 절제의 에토스와 여성적 감정의 거부는 소설 전반부의 강민주에게서 발견된다.

예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는 구원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순수한 비극일 수도 있고, 동정과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강한 남자의 거친 웃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비열한 거리에서 홀로 고고하게 비열하지도 때 묻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남자는 떠나야 한다. 리얼리즘 속의 탐정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히어로다. 그는 모든 것이다. 그는 완전한 남자여야 하고, 평균적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평범하지는 않아야 한다. 진부한 표현으로 그는 진정한 남자다. 그것은 몸에 배어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고, 필연적이지만 남들 앞에서 스스로 떠벌리지는 않는다. 자신이 사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남자여야 하며 다른 세상에서도 잘 통하는 남자다. 그의 사생활에 필자는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그는 내시도 아니며 호색가도 아니다. 조직 보스의 여자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처녀를 더럽히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면에서 진정한 남자라면 다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⁷⁵⁾

위의 인용처럼 레이먼드 챈들러는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을 ‘완전한 남자’, ‘진정한 남자’, ‘자신이 사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남자’라고 칭하고 있다. 이처럼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은 보통 터프한 남성들이다. 이들은 하드보일드 소설의 ‘전형적인 남성적 세계관과 스타일’⁷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들이다.

“여성의 배제와 남성성의 이상화는 추리소설 젠더 구조의 핵심”⁷⁷⁾이기

74) 리타 펠스키, 김영찬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147면.

75) 레이먼드 챈들러, 최내현 역, 『심플 아트 오브 머더』, 북스피어, 2011, 34~36면.

76) 레너드 카스토, 위의 책, 32면.

도 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드보일드 소설에서 남성성이 강조되는 경향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남성 헤게모니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학적 응전으로 해석되어왔다.⁷⁷⁾ 제 2차 세계대전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들었고, 이에 따라 젠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다. 거칠고 강한 남성상의 추구는 이러한 젠더 역할의 변화에 대한 남성들의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주인공은 강민주라는 여성 터프가이다. 이 여성 터프가이는 하드보일드 관습을 비틀어 생긴 틈 속에서 탄생했다. 거칠고 냉정하지만, 여성의 몸으로 여성들의 복수를 대리하고자 하는 이 터프가이를 두고, ‘헤게모니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무의식의 형상화’라고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강민주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며, (후에 변화하지만)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할 때 내세워 온 터프함과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지양하는 냉정함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을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초월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강민주의 분열된 육체, 관습화된 성적 특질, 젠더 의식은 강민주를 젠더적으로 규정하기 까다로운 존재로 만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후반부에 나타난 강민주의 변화와 죽음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강민주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백승하에게 감화되고 역시 남성인 황남기에 의해 살해당한다는 결론이 결국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의 패배로 비추어지는 것은, 강민주의 생물학적 성에만 주목한 결과가 아닐까?

이 소설이 하드보일드 소설의 관습을 끝까지 고수했다라면, 터프가이로서 강민주의 남성성 또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터프가이의 모습은 백승하의 고백 이후 사라진다. 이렇듯 하

77) 김정민, 위의 책, 32면.

78) 김정민, 「계급, 남성성, 범죄-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사회학」, 『영어영문학』58(1),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5면.

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변용을 통해 드러나는 남성성의 후퇴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것이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소설에서 성별(sex)이라는 경계를 위반하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등장했다가 후퇴하기도 한다. 이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고착된 개념으로 파악하는 성 관념에 균열을 일으킨다.

4. 전도(顛倒)를 넘어서

1994년에 장길수 연출, 최진실 주연의 영화로 재탄생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본 남녀 관객의 반응은 상이했다고 한다. 억압받는 여성들은 영화 전반부 강민주를 통해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여성 관객의 90% 이상이 극 중 강민주의 납치가 무죄라며 그녀를 옹호했다. 반면 남자 관객들 대부분은 ‘이런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에게 기어오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⁷⁹⁾ ‘기어오른다’라는 남성 관객들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계적 젠더 체계가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화와 소설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였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는 강민주라는 여성에게 남성성이 부여되고 백승하라는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성의 전도(顛倒)가 이루어졌다. 뒤바뀐 성(性)이 기존의 젠더 체계에 충격을 줄 수는 있다. 소설 전반부의 강민주에게 여성 독자들이 느꼈던 통쾌한 대리만족은 이러한 성의 전도에 기반하고 있다. 후반부 강민주의 변화에 대한 여성 독자의 실망은, 강민주에게 부여된 남성성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민주에게 ‘거꾸

79) 김명환, 「억압 여성 대리만족 통쾌, 『조선일보』 17면, 1994.02.18.

로' 부여된 남성성에 여성 독자들이 느끼는 짜릿함과 통쾌함이란, 이원 대립적 구도 속에서 파악되는 남성성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이 될 수 있다. 전도란 기존 체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위아래만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성의 전도만으로는 위계적 젠더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유동적이며, 이원 대립적이지 않으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을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위계적 젠더 체계를 해체하고 수평적 젠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청된다.

강민주의 변화는 전도를 넘어서, 새로운 젠더 체계를 상상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강민주에게 부여되었던 남성성의 후퇴가 곧 여성성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민주의 변화를 '여성으로 되돌아간 것'⁸⁰⁾과 동일시하는 평가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변화한 강민주는 여성적인 여성으로도, 남성적인 여성으로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녀는 성의 이원 대립적 체제에 포섭되지 않고 체제 밖에서 흘러 다니는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그녀의 죽음은 여성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작가인 양귀자가 꿈꾸는 새로운 젠더 체계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각자 동등한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⁸¹⁾ 체계였다. 이러한 젠더 체계는 2020년대인 지금까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젠더 불평등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고, "양성의 평등을 확산시켜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한다"⁸²⁾는 기치 아래 출범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는 2022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수평적인 젠더 체계가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 현실의 체계로 자리 잡기 전까

80) 이경덕, 위의 글, 386면.

81) 양귀자, 「작가의 말」, 위의 책, 358면.

82) 문지영, 「성평등은 민주주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 『사회과학연구』28(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46면에서 재인용.

지, 강민주라는 캐릭터는 여전히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끌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하드보일드 소설로 읽고, 소설에 나타난 하드보일드 관습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설에서 추리나 미스터리적 요소보다는 주인공이 범죄를 계획·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션과 서스펜스가 주를 이루는 점, 제도나 법 등에 대한 불신이 작품 기저에 깔린 점, 거칠고 냉정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인간관계에서 고립된 터프가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 등은 하드보일드 소설의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폭력과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로는 이런 문제를 억제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은, 주인공을 사적 복수의 길로 이끈다. 90년대 초에 현실과 각종 매체에서 재현된 여성 주체의 범죄 서사도 사적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나타난 사적 복수에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 이루어진 하드보일드 소설 관습의 변용은 기존의 위계적 젠더 질서에 충격을 가한다. 이 소설은 강민주라는 여성 터프가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는 통상적으로 남성성을 대표하는 남자 주인공을 내세우고 여성은 대상화하는 하드보일드 소설 내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다. 강민주의 분열된 육체, 관습화된 성적 특질, 젠더 의식은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교란한다. 또한 강민주는 끝까지 거칠고 냉정한 여타의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강민주의 변화와 죽음은 여성의 패배로 읽히며 독자와 평단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강민주를 생물학적 성에 결박된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여성성과 남성성 또한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강민주의 변화와 죽음을 둘러싼 기존의 평가는 재고될 여지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쓰다, 2019.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살림, 1992.

2. 단행본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김용언, 『여자에게 어울리는 장르, 추리소설』, 메멘토, 2022.
 류보선, 『경이로운 차이들』, 문학동네, 2002.
 박유희, 『한국영화 표상의 지도』, 책과함께, 2019.
 박혜경, 『문학의 신비와 우울』, 문학동네, 2002.
 황중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닉 레이시, 임영호 역, 『내러티브와 장르』, 산지니, 2020.
 대실 해밋, 고정아 역, 『볼타의 매』, 열린책들, 2009.
 미키 스피클레인, 박선주 역, 『내가 심판한다』, 황금가지, 2005.
 레너드 카수토, 김재성 역, 『하드보일드 센터멘털리티』, 뮤진트리, 2011.
 레이먼드 찬들러, 최내현 역, 『심플 아트 오브 머더』, 북스피어, 2011.
 레이먼드 찬들러, 김진준 역, 『기나긴 이별』, 열린책들, 2020.
 리타 펠스키, 김영찬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Christopher Breu, *Hard-boiled Masculinit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Susanna Lee, *Detectives in the Shadow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20.
 Marty Roth, *Foul & Fair Play: Reading Genre in Classic Detective Fictio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5.
 Erin Smith, *Hard-Boiled*, Temple University Press, 2000.

3. 논문

계정민, 「계급, 남성성, 범죄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사회학」, 『영어영문학』58(1), 한국영어영문학회, 3-19면.
 김양성·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
 과 사회』4, 한국여성연구소, 1993, 102-125면.
 문지영,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 『사회과학연구
 』28(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38-73면.

- 박유희, 「한국 추리소설에 나타난 ‘탐정’ 표상」, 『한민족문화연구』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397-434면.
-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③-하드보일드와 누아르, 내면의 분투 혹은 ‘후까시’로의 승화」, 『계간 미스터리』, 2022년 봄, 346-358면.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문학과학』83, 2015년 가을, 14-47면.
- 신혜원,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장르적 특성 연구」, 『미국학논집』44, 한국아메리카학회, 2012, 83-103면.
- 이경덕, 「여성문제의 인식과 소설적 형성화」, 『실천문학』30, 1993.5, 365-387면.
- 이명호 외, 「좌담: 페미니즘과 대중문화의 만남, 뿌리내리기」, 『여성과 사회』5, 한국어성연구소, 1994.1, 6-38면.
- 이소희,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또 하나의 문화』9, 또 하나의 문화, 1992년 겨울, 200-217면.
- 이한나, 「양귀자 소설의 정치성 재고」, 『동악어문학』80, 동악어문학회, 2020, 175-206면.
- 이혜령, 「어느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의 딜레마」, 『대중서사연구』25(4), 대중서사학회, 2019, 223-261면.
- 전청림, 「양귀자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81, 현대소설학회, 2021, 287-319면.
- 정태원, 「현대 추리소설의 여러 양상」, 『오늘의 문예비평』11, 오늘의 문예비평, 1993년 겨울, 295-308면.
- 허주영, 「1990년대 페미니즘의 대중화, 그 직전의 풍경」, 『민족문학사연구』7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171-205면.

4. 신문·잡지 기사 및 기타

- 「날뛰는 성범죄 밤낮이 없다」, 『경향신문』, 1990년 11월 6일, 15면.
- 「『강간당한 남자』 마타 티카(저)-여성의 시각으로 본 성폭력과 법률해석의 갈등」, 『동아일보』, 1990년 12월 20일, 18면.
- 「"아내 절반이 맞고 산다"」, 『경향신문』, 1991년 1월 5일, 9면.
- 「술 취해 구타 일삼는 남편 살해 주부 항소심서 집유」, 『조선일보』, 1991년 8월 9일, 23면.
- 「은행강도 등 ‘거친 여성상’ 부각」, 『조선일보』, 1991년 8월 10일, 13면.
- 「여성 범죄 26% 급증 경찰청, 지난해 분석」, 『동아일보』, 1991년 8월 11일, 15면.
-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동아일보』, 1991년 8월 17일, 18면.
- 「성폭행 피해자 김부남씨 선처해야」, 『한겨레』, 1991년 8월 18일, 12면.

- 「유죄 인정 부당」 항소 채비 후원단체 “법과 정상 현명하게 조화” 범조·학계, 『조선일보』, 1991년 8월 31일, 12면.
- 「성폭행 보복 살해 집유」, 『조선일보』, 1991년 8월 31일, 23면.
-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씨 사건 여성계 제2의 김부남 공동대응」, 『한겨레』, 1992년 1월 29일, 8면.
- 「김보은씨 무죄 거리 서명 충북 8개 사회·학생단체」, 『한겨레』, 1992년 4월 22일, 13면.
- 「여성의 굴레」, 『조선일보』, 1992년 7월 21일, 5면.
- 이문재, 「女터미네이터의 전면전」, 『시사저널』, 1992년 7월 30일.
- 「양귀자 장편소설」, 『동아일보』, 1992년 8월 2일, 3면.
- 「양귀자와 함께」, 『아침마당』, KBS, 1992년 9월 4일.
- 「가을 서점가 우리 소설 인기」, 『조선일보』, 1992년 9월 29일, 15면.
- 「양귀자 장편소설」, 『동아일보』, 1992년 10월 4일, 15면.
- 「Book 스테디셀러…손꼽히는 책들」, 『조선일보』, 1993년 12월 25일, 13면.
- 김명환, 「억압 여성 대리만족 통쾌」, 『조선일보』, 1994년 2월 18일, 17면.
- 이기문, 「20년 동안 인터뷰도, 책 광고도 없었는데…양귀자의 힘」, 『조선일보』, 2021년 3월 17일.

<Abstract>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Hard-boiled Fiction Conventions

– Focus on Yang Gui-Ja’s novel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Lee, Jung-An

Even if Yang Gui-Ja claimed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to be the mystery genre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in 1992, critics have not read it as a sort of genre fiction. Furthermore, critics harshly criticized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because the novel poorly represents reality, and this novel is not a feminism literature. However, this paper aims to explain Yang Gui-Ja’s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in terms of hard-boiled fiction. In particular, I will show that as a hard-boiled fiction,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successfully captures the reality and dismantles the patriarchal gender system.

In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the main female character, Kang Min-Ju, conducts a personal vendetta because of her distrust of the malfunctioning criminal justice system. The distrus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one of features of hard-boiled fiction. Also, as female crime narratives that rapidly rose in the 1990s, Kang Min-ju’s vendetta represents the reality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ntributes to perpetuat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society.

Kang Min-ju is a 'female' tough guy. The emphasis on masculinity is at the heart of hard-boiled fictions. Yang Gui-Ja intentionally reversed the gender of male and female. The inversion of sexuality impacts the

hierarchical gender order. However, the inversion cannot dismantle the existing order and form a new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inversion and imagine a new gender system, Kang Min-ju had to be changed.

Key words: Yang Gui-Ja, Hard-boiled, 1990s, Female crime, Feminism

투 고 일: 2022년 5월 25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2022년 6월 20일